

농업정책금융 해외사례

강 동 규 지역아카데미 연구위원
오 현 석 지역아카데미 대 표

연구 담당

강동규	지역아카데미 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제1장, 제3장

차 례

제1장 유럽 공동농업정책

- 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 1
- 2. CAP 개혁과 다년도 예산(2014~2020년) 2

제2장 독일

- 1. 농업 현황 7
- 2. 농업분야 금융 현황 9
- 3. 렌텐뱅크 정책금융 11

제3장 프랑스

- 1. 농업 현황 23
- 2.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 25
- 3. 농업정책금융의 분류 28
- 4. 농업정책금융 운용시스템 33

- 참고 문헌 39

표 차례

제1장

표 1-	1. EU와 CAP 예산	5
------	---------------------	---

제2장

표 2-	1. 독일의 농업인구와 농업경영체 현황	8
표 2-	2. 독일 농업분야 금융 현황	10
표 2-	3. 렌텐뱅크 농업정책금융 대출조건	16
표 2-	4. 렌텐뱅크 농업·농촌분야 대출현황	18
표 2-	5. 2013년 독일 농식품분야 매출	21

제3장

표 3-	1. EU 각국의 동물생산(2012년)	23
표 3-	2. EU 각국의 식물생산(2012년)	24
표 3-	3. 프랑스 경제에서 농업 및 식품산업 비중	24
표 3-	4. 프랑스 경영유형별 농가수	25
표 3-	5.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	26
표 3-	6. 농업 및 농촌지역분야 세부지원 현황	26
표 3-	7. 지원형태별 구분(농가직접지원 대 간접지원)	27
표 3-	8. 유형별 농가보조금 추이	27
표 3-	9. 농업부문 여신규모와 금융비용 변화 추이	29
표 3-	10.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 추이	29
표 3-	11. 농업정책금융의 종류	30
표 3-	12. 농업부문 정책금융 추이	31
표 3-	13. 청년영농정착 지원건수 추이	32
표 3-	14. 청년영농정착자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32
표 3-	15. 영농분야별 청년정착자 비율(%)	32

그림 차례

제1장

- 그림 1-1. CAP 예산 지출 통로 3
 그림 1-2. CAP의 목표와 양 축의 수단 4

제2장

- 그림 2-1. 렌텐뱅크 정책금융 흐름도 13
 그림 2-2. 렌텐뱅크 대출 프로그램 14
 그림 2-3. 렌텐뱅크의 대출상품 개발 프로세스 15
 그림 2-4. 렌텐뱅크 정책자금 신용평가 시스템 17
 그림 2-5. 신재생에너지 투자 변화 19

제3장

- 그림 3-1. 농업부문 정책금융 추이 31

제 1 장

유럽 공동농업정책

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

-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1962년 공급능력과 생산성 향상, 농업 소득수준 보장, 농산물 시장안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함.
 - 1992년 대대적인 개혁이 있기 전까지 CAP는 주로 시장개입과 보호주의에 기초한 가격지지(Price support)로 농업발전 전략을 택했으며, 시장정책의 보완차원에서 구조정책을 수행함.
 - 1992년 개혁으로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가격지지에서 직접 소득보장 정책(생산물지지, product based support)을 도입하였으며,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차원의 구조정책을 실시함.
 - 2000년에 들어서서는 시장정책의 생산물지지에서 생산자지지(Producer support) 형태로 전환하였고, 농촌개발정책을 CAP의 제2축으로 설정하고 통합적인 접근에 의한 농촌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함.

- CAP의 제1축인 시장정책과 제2축인 농촌개발정책은 상호 보완을 하며 수행되고,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크게 3가지 목표를 지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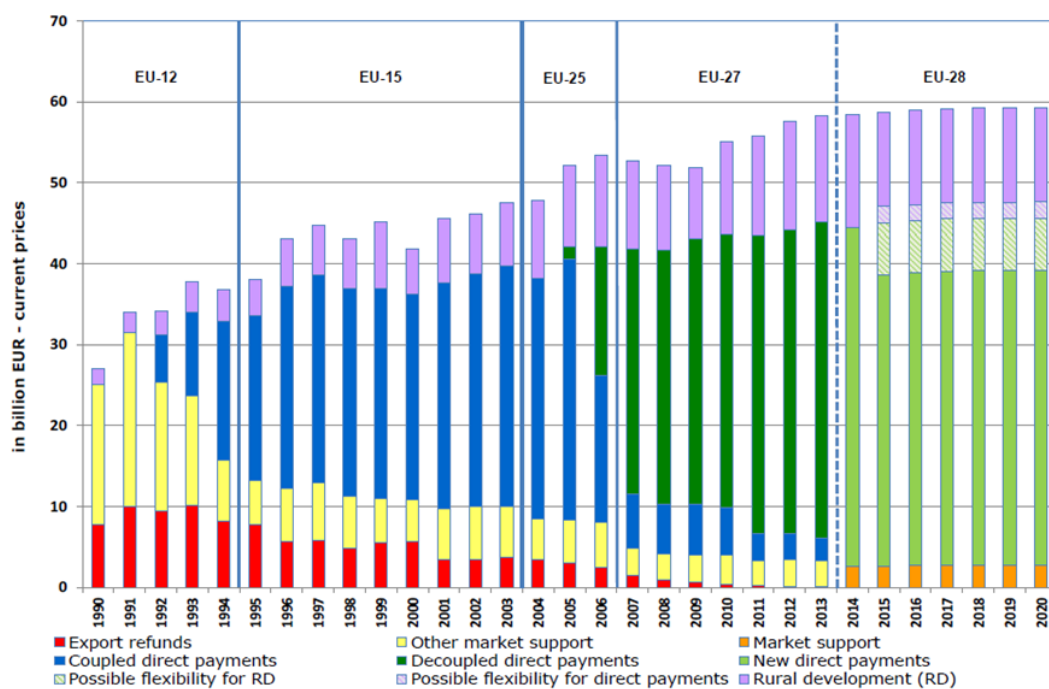
고 있음.

- 첫째,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둘째, 식품이 생산되고 사람이 거주하는 자연공간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셋째,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임.
 -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시장정책의 직접지불도 농산물지지, 생산자지지의 단계를 넘어 환경과 생태, 식품안전, 동물보호 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하게 시행함(환경중심지지, environment based support).
-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회원국의 증가,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나타나며 CAP는 7~8년을 주기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3년 12월에 최종 합의를 본 대대적인 개혁도 3년간의 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짐.
 - 이번 개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28개 회원국들이 시행할 내용을 담고 있음.

2. CAP 개혁과 다년도 예산(2014~2020년)

- 2013년 개혁의 의의는 유럽 농업이 더욱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되며, 안정적인 환경요건을 갖추게 하는 데 있음. 또한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위해 농촌을 가꿀 수 있는 젊은 농업인을 지원하는 데 있음.
- 주요 변화 내용은 2005년도에 도입한 생산자를 연계한 직접지불을 완전히 폐지하고 환경과 연계된 새로운 직불제도(Greening)를 도입했다는 것임.
 -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1992년 개혁에서 도입한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직접지불은 2007년 개혁 이후 미미하게 유지되었으나 2013년 개혁으로 2014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됨.

그림 1-1. CAP 예산 지출 통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 이번 개혁에 따른 CAP 제1축 직접지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Basic Payment는 경작면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직불금으로, 지금까지는 회원국마다 문화적 차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향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환하게 됨.
 - Green direct payment는 Greening으로서 작물재배 다양성, 지속적인 초지 유지, 생태 우선지역 선정 등 환경과 기후보호, 생물종 보전을 할 때 지불되는 직불금임.¹
 - Young farmers는 젊은 농업인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보조금형태로 지불하는 직불금으로 신청부

¹ Green direct payment는 이번 개혁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직불제로, 일명 'Greening' 이라고 함. 독일의 경우 지속적인 초지 유지, 다양한 작물 재배 등과 같은 환경성과에 기여하는 경작을 했을 때 헥타르당 85유로를 지불함.

터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음.

- **Small farmers**는 중소경영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작면적을 근거로 지불하는 직불금임.
- **Coupled support**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취약한 지역이나 분야에 있는 경영체들을 선별하여 다른 조건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직불금임.

그림 1-2. CAP의 목표와 양 축의 수단

PILLAR I	TARGETED ACTION	PILLAR II*
Green payment	ENVIRONMENT	Agri-environment-climate Organic, Natura 2000
Top-up payment	YOUNG FARMER	Business development grants Higher investment aid
Top-up payment	AREAS WITH NATURAL CONSTRAINTS	Area payments
Alternative simplified scheme	SMALL FARMER	Business development grants
Improved legal framework	PRODUCER COOPERATION	Aid for setting up producer groups Cooperation and short supply chain

*Only main measures that target the specific issue under Pillar 2 are mentioned.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 이번 개혁의 또 다른 의미는 5개의 목표에 대해 제1측과 제2측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있음<그림 1-2>.
 -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각 측의 예산을 15% 이내에서 다른 측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

표 1-1. EU와 CAP 예산

단위: 백만 유로

제 목	2007~2013	2014~2020	증감액	비율(%)
EU 예산	994,176	959,988	-34,188	-3.5
이 중 농업분야	420,682	373,179	-47,503	-11.3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재구성.

- 2014~2020년까지 EU 전체 예산은 9,599억 유로로 2007~2013년까지 9,941억 유로보다 3.5%가 감소한 금액임.
 - CAP에 해당되는 농업분야 2014~2020년 예산은 2007~2013년 대비 475억 유로(-11.3%)가 감소하여 3,732억 유로임.
 - CAP 예산은 EU 전체 예산 가운데 39%를 차지함.

제 2 장

독일

1. 농업 현황

- 독일은 전체 인구 8,080만 명(2013년) 가운데 1.26%에 해당하는 약 102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102만 명 가운데 50%는 가족 구성원이고 나머지 50%는 가족이 아닌 고용인이며, 고용인 가운데 40%는 상시 고용인이고, 60%는 일시적 고용인임.
- 농장수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여 2013년 기준 약 28만 5,000개이고, 이 가운데 90%는 가족농임. 나머지 10%는 법인이나 인적회사로 구성된 농업경영체에 해당됨.
- 농업경영체의 평균 소득은 2012년에 5만 5,572유로였으며, 2013년에는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6만 2,535유로를 기록하였음. 이는 그동안 가장 높았던 2008년의 소득 약 6만 유로보다 더 높은 수치임.
 - 농업경영체 유형별 소득은 밭작물을 경작하는 경영체가 전년보다 58% 증가한 11만 1,766유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낙농 경영체가 4만 6,987유로로 가장 낮게 나타남<표 2-1>.

- 발작물 경작 경영체 소득이 58%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13년도 수확량이 많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종자, 비료, 농약,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되었기 때문임.
- 낙농장(우유, 비육우)은 전년도에 비해 10%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유가(34센트/kg)는 전년과 비슷했으나 사료값이 인상된 것에 기인함. 2014년도에 유가는 상승하고(40센트/kg) 반면에 사료값은 소폭 감소하여 많은 소득증가가 예상됨.

표 2-1. 독일의 농업인구와 농업경영체 현황

농장유형	농장비율	2012년 (유로)	2013년 (유로)	증감률
Ackerbau(경작)	15.2	70,665	111,766	+58.2
Gartenbau(원예)	5.0	49,473	52,977	+ 7.1
Dauerkultur(과수)	6.2	55,412	68,898	+24.3
Futterbau(낙농·비육)	46.4	52,184	46,987	-10.0
Veredlung(양돈·가금)	11.0	59,895	68,550	+14.4
Gemischt(복합)	16.3	50,159	57,476	+14.6
농장 평균소득	-	55,572	62,535	+12.5
전체 농장수	-	287,500개	285,000개	-0.87

자료: BMEL(2013).

- 농장유형별 분포 비중을 보면 낙농장이 46.4%를 차지하여 전체 농장수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복합영농과 발작물 경작이 각각 16.3%와 15.2%로 그 다음을 차지함.
- 농장수는 2012년 28만 7,500개에서 2013년에 28만 5,000개로 1년 사이에 2,500개가 감소하여 0.87%가 줄어듦. 독일의 농장수는 10년 전인 2004년에는 40만 개였으나, 10년 사이에 28.7%(11만 5,000개)가 줄어들었음.
 - 반면에 평균 경작면적은 2013년 58ha로 늘어남.

2. 농업분야 금융 현황

- 독일의 농업분야 자금 흐름은 크게 EU 공동농업정책에서 할당된 예산, 연방정부 농식품부의 예산, 그리고 렌텐뱅크의 정책금융 대출로 나눌 수 있음. 이 외에도 주 정부의 자체적인 예산이 있으나 주마다 다르고 많지 않으며, 기타 일반은행의 대출이 있음.
- EU 예산 가운데 농업분야로 독일에 할당된 예산은 2007~2013년 동안 매년 평균 65억 유로였음. 2013년 말에 통과된 새로운 다년도 예산(2014~2020년)에 따라 독일은 이 기간 동안 매년 평균 62억 유로를 할당 받게 되어 이전보다 감소함.
 - EU 예산 가운데 농업분야에 할당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 할당되는 농업분야 EU 예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독일 연방정부 농식품부의 예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입과 지출을 같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증액하지 않고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예산도 2012년 52억 8,000만 유로에서 2013년 52억 6,900만 유로로 0.2% 감소함.
 - 연방정부 농식품부의 52억 유로 농업분야 예산은 독일 전체 예산 3,020억 (2013년) 유로의 7.5%에 해당함.
- 렌텐뱅크의 농업분야 대출은 2012년 약 65억 유로에서 2013년 약 72억 유로로 11.9%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난 5년 이상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렌텐뱅크의 정책자금 대출은 독일 농식품분야 전체 대출액 462억 유로의 약 15.6%에 해당함.

표 2-2. 독일 농업분야 금융 현황

구 분	연 도	금 액 (백만 유로)	전년 대비 증감률
EU 예산 (공동농업정책 독일 지분)	2013	6,500	
	2014	6,200	-4.8
연방정부 농업분야 예산	2012	5,280	
	2013	5,269	- 0.2
렌텐뱅크 정책금융	2012	6,469	
	2013	7,236	+11.9
주 정부와 일반은행		-	

자료: 여러 자료 재구성.

- 독일의 농업 자금 가운데 농업 정책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렌텐뱅크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음.
 - 렌텐뱅크의 정책자금 대출 액수 72억 유로(약 10조 원)는 EU의 독일 농업분야 예산(62억 유로)이나 연방정부 농식품부의 농업분야 예산(약 52억 유로)을 능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렌텐뱅크의 정책자금 운용시스템과 내용 및 대출을 중심으로 자세히 다룸.

3. 렌텐뱅크 정책금융

3.1. 렌텐뱅크 유래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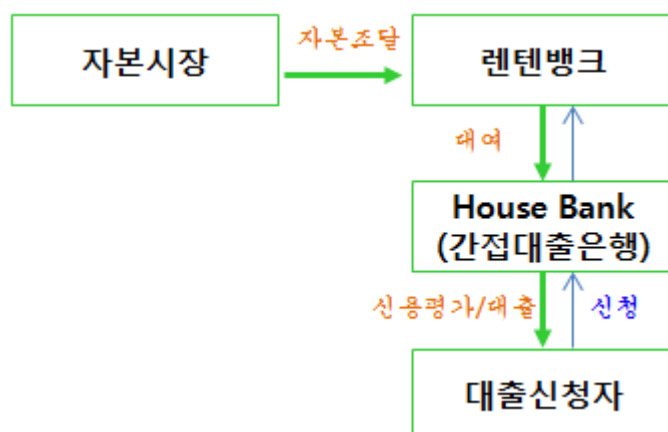
- 독일의 렌텐뱅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분야 악성채무 해결을 위해 정부가 1925년에 렌텐은행신용기구(RKA)를 설립한 것이 시작임.
 - 2차 대전 이후 동서독이 분할되며 렌텐은행신용기구도 사실상 분할되었음. 따라서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렌텐은행신용기구로서 역할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독을 제외한 서독에서만 농업·농촌분야 은행인 농업렌텐뱅크(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LRB)로 개명하여 거듭나게 되었음.
- 렌텐뱅크는 농업렌텐은행법(LwRentBkG)에 기초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서 법적으로 지점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음(「농업렌텐은행법」 제1조). 이 때문에 일반고객과는 직접 거래하지 않고, 고객과 거래하는 일반은행(House Bank: 간접대출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는 재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렌텐뱅크의 임무는 농업과 농촌공간의 발전을 위해 연방과 주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임(「농업렌텐은행법」 제3조).
 - 「농업렌텐은행법」 제3조에 열거된 임무는 다음과 같음: 1. 농업, 임업, 원예, 양식업 및 이와 관련된 전후방 분야, 2. 농식품 생산물을 위한 판매 및 저장, 유럽연합 내에서의 시장개척과 확립, 3. 농업 관련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및 농업 재생자원 촉진, 유기농업의 확장, 농업 동물보호, 4. 농촌공간에서의 인프라 개선, 5. 농업관련 소비자보호 등
- 렌텐뱅크는 연방 농식품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연방 재정부의 간접적 감독을 받고 있음.

3.2. 렌텐뱅크 정책금융 운용시스템

- 렌텐뱅크는 설립 초기에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음. 1973년 공동임무법의 개정²에 따라 렌텐뱅크의 기능이 주정부로 이양되어 정부의 예산이 축소됨.
 - 정부 예산 축소에 따라 렌텐뱅크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주로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렌텐뱅크는 최고의 신용평가 결과²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매우 낮은 금리로 조달받고 있음. 이윤창출이 은행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간접대출은행(House Bank)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일반은행보다 통상적으로 낮은 금리(약 0.5~1%)를 제공하는 렌텐뱅크의 자금을 선호하게 됨.
- 렌텐뱅크는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농업부문 전체 대출액 462억 유로 가운데 72억 유로(전체의 15.6%)를 제공하고 있음(2013).
 - 렌텐뱅크의 농업 정책금융의 흐름은 <그림 2-1>과 같음.
-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렌텐뱅크의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자가 거래은행인 간접대출은행(House Bank)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간접대출은행은 렌텐뱅크의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며 일정 부분 이자와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됨.

² 렌텐뱅크는 매년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Moody's Investor Service, Standard & Poor's, Fitch Ratings)으로부터 최고의 신용등급인 Triple A를 받고 있음(2013).

그림 2-1. 렌텐뱅크 정책금융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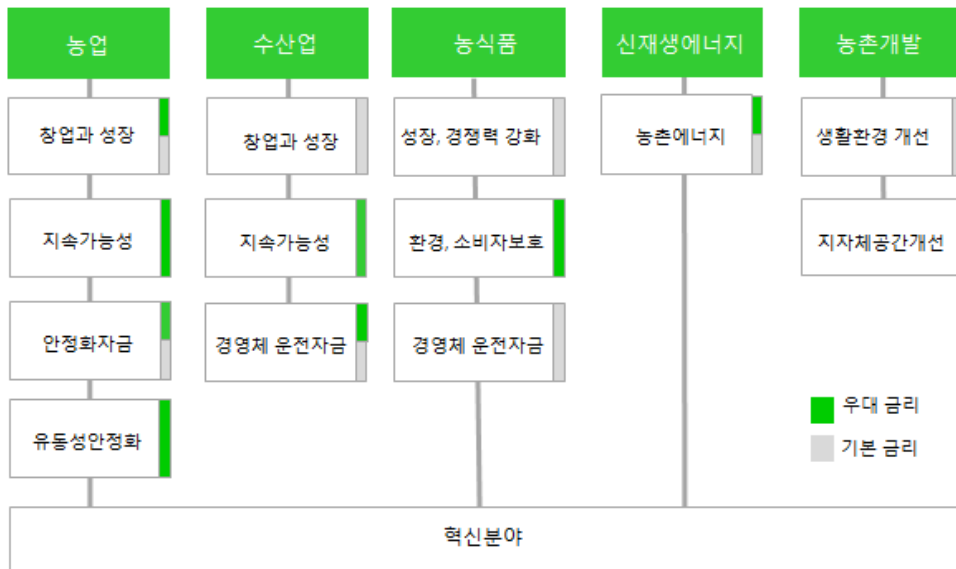


자료: 렌텐뱅크 제공자료 재구성.

3.3. 렌텐뱅크 대출분야와 상품 개발

- 렌텐뱅크는 법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대상황과 요구에 맞게 자체적인 대출프로그램을 개발함. 1971년 특별대출프로그램 ‘농업’을 개발하여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마을정비’, ‘동독지역 농업회사 개편’,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농촌생활’, ‘수산업’ 등의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현재는 <그림 2-2>처럼 농업, 수산업, 농식품, 신재생에너지, 농촌개발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대출상품을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창업자금, 성장자금, 운전자금, 안정화자금 등의 하위주제를 설정해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혁신’대출은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개발 등에 해당되는 경우임.

그림 2-2. 렌텐뱅크 대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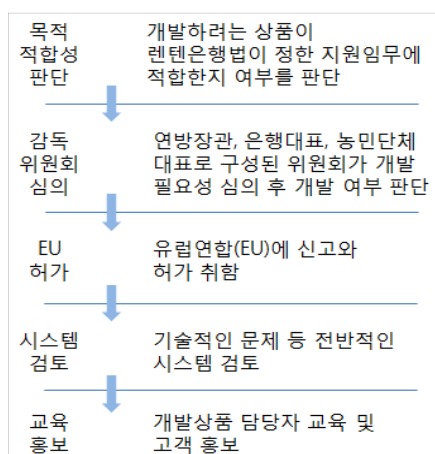


자료: 연차보고서(2013). 재구성.

- 렌텐뱅크는 시대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상품개발 과정은 고객의 요구가 렌텐은행법에 적합한지 판단한 후, 감독위원회³의 심의를 거치고, 유럽연합의 허가를 받은 후, 시스템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상품개발을 완료, 상품을 홍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됨.
 - 2005년 이후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 ‘농촌에너지’, ‘수산 및 어업’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2012년에 ‘주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풍력파크(Bürger-und Bauernwindparks)’를 개발하였고, 2014년에는 ‘농업분야 혁신 연구(Forschung für Innovationen in der Agrarwirtschaft)’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³ 렌텐뱅크 감독위원회에는 연방 농식품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렌텐뱅크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은 농식품부와 밀접한 협력 속에 이루어짐.

그림 2-3. 렌텐뱅크의 대출상품 개발 프로세스



자료: 렌텐뱅크 제공자료 재구성.

3.4. 렌텐뱅크 대출 조건

- 렌텐뱅크 대출 조건은 <표 2-3>에서 보는 것처럼 농업경영체이거나 관련 대출 상품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용자를 신청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외에 중소기업(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KMU) 조건을 갖춰야 지원대상이 되는 분야가 많은데, 여기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직원 수가 250명 미만(연계회사, 파트너 포함)이어야 하며, 합산한 연 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고, 합산한 대차대조표가 4,300만 유로 미만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주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풍력파크’는 농업인이 아닌 농촌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농촌개발 부분에서는 지자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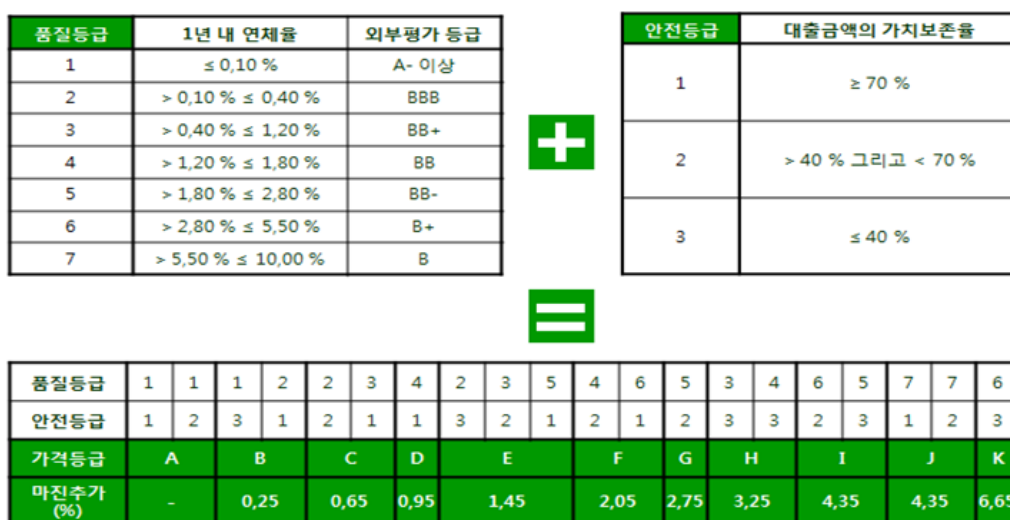
표 2-3. 렌텐뱅크 농업정책금융 대출조건

부문	금융분야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기타
농업	창업과 성장 자금	경영체(농업, 원예, 포도) [중소기업 조건 충족 필요]	1,000만 유로 (150억 원)	리스크적합 이자시스템	하우스뱅크, 보조금상환선, 목적부합사용 증명
	지속가능성 자금				
	안정화자금				
	유동성 안정화				
수산업	창업과 성장 자금	수산업 경영체 [중소기업 조건 충족]			
	지속가능성 자금				
	경영체 운전자금				
농식품	성장과 경쟁력강화	농식품 중소기업 [중소기업 조건 충족]			
	환경과 소비자보호				
	경영체 운전자금				
신재생 에너지	농촌에너지	에너지생산기업 [중소기업 조건 충족]			
농촌개발	생활환경 개선	농촌주민, 비영리법인	기본금리	하우스뱅크, 사용증명	
	지자체 공간개선	인구 5만 미만 지자체	시중금리		
공통	혁신분야	중소기업, 연구소	50%, 100%	1.5%	렌텐은행, 농식품부

자료: 렌텐뱅크 제공자료 재구성.

- 금리는 대출 프로그램마다 대부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하의 청년영농인과 혁신분야(신제품, 기술개발 등)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우대금리는 시장 금리의 변동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대략 연 1%선에서 제공되고 있음.
 - 우대금리가 아닌 일반금리의 경우 렌텐뱅크에서 간접대출은행에 제공되는 금리가 약 2%임(내부 비공개자료 2012).
- 따라서 농업인은 렌텐뱅크의 자금을 대출받을 때 렌텐뱅크의 기본금리(또는 우대금리)와 간접대출은행의 마진추가(은행이 부과하는 마진)를 반영한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됨.
 - 대출금리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림 2-4>에서 보는 것처럼 신용도에 따라 마진추가가 6.65%까지 차이가 나게 됨.

그림 2-4. 렌텐뱅크 정책자금 신용평가 시스템



자료: 렌텐뱅크 제공자료 재구성.

3.5. 렌텐뱅크 대출분야별 비중

- 2013년 렌텐뱅크를 통한 농업·농촌분야 대출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3년은 72억 유로로 전년도 65억 유로에 비해 약 11.9%가 증가하였음<표 2-4>.
 - 이러한 증가는 이자율이 낮고 농업 시장환경이 분야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에 기인함.

- 대출분야별 실적은 농업분야가 28.4억 유로(34.3%)로 가장 많고, 농촌개발분야가 21.4억 유로(29.6%)이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15.99억 유로(22.1%), 농식품분야가 6.37억 유로(8.8%)를 기록함.

표 2-4. 렌텐뱅크 농업·농촌분야 대출현황

단위: 백만 유로(Mio.€)

대출분야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업	2,006	37.2	2,056	34.4	1,652	26.4	2,438	37.7	2,842	34.3
신재생에너지	1,554	28.8	2,322	38.8	2,456	39.2	1,410	21.8	1,599	22.1
농촌개발	1,354	25.1	1,243	20.8	1,808	28.9	2,130	32.9	2,143	29.6
농식품	204	3.8	279	4.7	330	5.3	480	7.4	637	8.8
기타	268	5	80	1.3	10	0.2	12	0.2	16	0.2
총대출액	5,387		5,980		6,256		6,469		7,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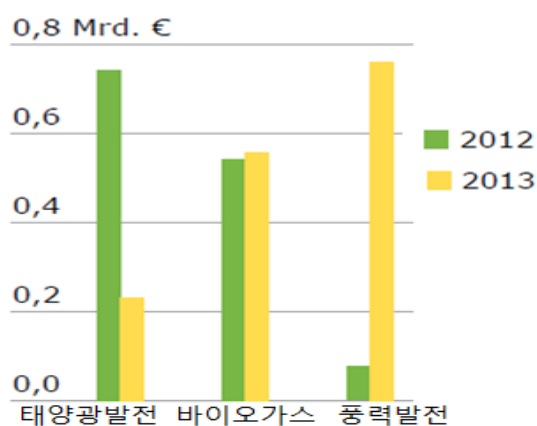
자료: 렌텐뱅크 연차보고서 재구성.

- 농업분야의 대출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한 것은 EU의 CAP 개혁과 연관하여 2015년에 우유쿼터제가 폐지되는 것을 대비해 낙농가들이 최신설비를 하는 등 시설 현대화와 축사 건축, 토지구매 등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 기인함.
- 이처럼 농업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농업 시장환경이 양호한 것 외에, 다른 한편으로 경영체가 농업분야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2012년도에 감소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농업경영체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과 바이오가스 시설에 많은 투자가 있었으나 2012년 「재생에너지법(Erneuebare-Energien-Gesetz: EEG)」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에 기인함.⁴

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법에서 예상한 태양광 전기 생산량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때문에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12년부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풍력발전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BWE 2014).

- 2013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출 증가는 렌텐뱅크가 2012년 ‘주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풍력파크(Bürger- und Bauernwindparks)’라는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축소된 부분 이상으로 풍력파크에 투자가 이루어진 것에 기함.
- ‘주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풍력파크’ 프로그램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풍력발전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수용력을 높이고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지역에 머무르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줄어들고 풍력은 늘어난 반면에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2-5 참조>.

그림 2-5. 신재생에너지 투자 변화



3.6. 렌텐뱅크 최근 대출 동향

3.6.1. 첨단 기계 시설

- 렌텐뱅크는 최근 농장수 감소에 대응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생산을 위해 첨단 기계시설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를 확장하고 있음.
 - 첨단 기계화 시설의 사례: 비료 살포 로봇, 토마토 수확 로봇, 목재 채취 로봇, 착유 로봇, 축사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 과수원 해충 컨트롤 시스템 등
 - 농업분야에서 효율적인 생산, 친환경적인 노동을 위해 로봇(예: 착유로봇), 자동기계 형태 등의 기술의 진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 분야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으로 ‘농업분야 혁신 연구(Forschung für Innovationen in der Agrarwirtschaft)’를 추가하게 됨. 이 프로그램은 농업경영체가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생산, 처리, 서비스 개발 등 혁신적인 사안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음. 또한 현업 농장에 혁신적인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학술적인 연구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3.6.2. 농식품분야 대출 증가

- 농식품분야(식품, 사료 및 음료의 생산)가 렌텐뱅크 정책금융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며, 2013년도에는 농식품분야가 렌텐뱅크 전체 대출액의 8.8%를 차지함.
- 농식품분야 매출은 1,562억 유로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43억 유로는 국내에서, 319억 유로는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체 매출의 1/5이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독일의 농식품이 국외에서 수요가 많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반응이 좋음을 말함. 특히 유럽 국가에서 호응이 높은 편임.
 - 농식품분야는 독일에서 자동차산업, 기계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산업 분야에 해당하며, 2013년 기준 총 5,950개의 경영체가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55만 6,000명에 달함.
- 농식품분야는 대부분 중소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조 개선과 시장의 집중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렌텐뱅크 대출 활용이 예상된다.

표 2-5. 2013년 독일 농식품분야 매출

	억 유로	전년 대비 변화 %	수출비율 %
농식품산업 전체	1,562	2.7	20.4
이 중			
식품과 사료 생산	1,381	3.0	21.7
이 중			
도축과 육가공	361	-1.7	18.0
유가공	268	11.5	25.0
면류와 빵류	154	1.1	9.5
과자류	106	8.1	31.3
과일 및 채소가공	94	3.1	20.9
음료 생산	181	0.1	10.9
이 중			
청량음료, 탄산수	74	4.3	8.3
맥주	71	-4.0	10.0

주: 직원 50명 이상 경영체만 집계함.

자료: 렌텐뱅크 연차보고서(2013). 재구성.

3.6.3. 재생에너지와 풍력발전 시설

- 렌텐뱅크의 재생에너지 분야 대출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전체 정책금융 대출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 이는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인이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20년 동안 구매 보장 해주는 정책환경에 기인함.
- 현재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의 45%까지 차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더 나아가 2080년까지는 전체 전기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농업인들의 경영다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생에너지법」은 2010년과 2012년에 개정되었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많기 때문에 조절을 하고, 풍력발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음.
 - 이러한 법 제도적 변화로 2013년에는 태양광보다 풍력발전에 대한 대출이 많았음.
 - 2014년의 개정은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함임.
- 렌텐뱅크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대출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에 기인하여 당분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러한 활발한 정책금융의 활용이 일어나는 것은 법 제도적 환경과 정치를 비롯한 외부환경이 안정적일 때 가능함.

제 3 장

프랑스

1. 농업 현황

- 프랑스는 EU의 최대 농업생산국으로서 EU 동물생산액의 약 15.9%, 식물생산액의 21.1%를 담당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EU의 동물생산액은 총 1,655.5억 유로로 이 가운데 프랑스는 262.5억 유로를 생산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식물생산분야에서도 프랑스는 EU 전체 식물생산액인 2,097.8억 유로 가운데 441.7억 유로를 생산해 1위를 점하고 있음.

표 3-1. EU 각국의 동물생산(2012년)

국가	생산액(백만 유로)	비중(%)
EU	165,550	100.00
네덜란드	10,367	6.26
폴란드	10,369	6.26
영국	16,033	9.68
스페인	16,362	9.88
이탈리아	16,667	10.06
독일	26,060	15.74
프랑스	26,245	15.85

자료: MAAF-SAFSL, Agreste.

표 3-2. EU 각국의 식물생산(2012년)

국가	생산액(백만 유로)	비중(%)
EU	209,779	100.00
영국	10,918	5.20
폴란드	12,194	5.81
네덜란드	12,742	6.07
스페인	25,152	11.98
이탈리아	25,299	12.05
독일	27,665	13.18
프랑스	44,173	21.05

자료: MAAF-SAFSL, Agreste.

- 프랑스 경제에서 1차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0년대 초반에는 2%대 이하로 떨어졌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12년 현재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은 거의 일대일의 비율을 보이면서 프랑스 전체 경제의 3.5%를 담당하고 있음.

표 3-3. 프랑스 경제에서 농업 및 식품산업 비중

연도	농림수산업	식품산업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1980	3.8	2.8	6.6
1985	3.6	2.9	6.4
1990	3.3	2.6	5.9
1995	2.6	2.4	5.0
2000	2.2	2.1	4.3
2005	1.8	2.0	3.7
2010	1.6	1.6	3.2
2012(P)	1.8	1.7	3.5

자료: Insee-Comptes de la Nation.

- 프랑스 전체 농가수는 2010년 현재 49만 호로 1988년 101만 7,000호에서 20여 년 만에 농가호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음.
 - 1988년에는 전체농가의 7%만이 법인형태(GAEC, EARL)였으나, 2010년에는 30.6%가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음.

-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988년 28ha에서 2010년에는 56ha로 두 배 늘어났음.

표 3-4. 프랑스 경영유형별 농가수

단위: 천 호

경영유형	1988	2000	2010
곡물	175	126	119
포도	132	98	70
복합영농, 복합축산	199	100	61
육우	99	80	60
염소, 양	93	82	56
낙농	175	76	50
양돈, 양계	54	40	30
과일	33	24	19
화훼, 원예	34	19	15
육우, 낙농	25	18	11
계	1,017	664	490

자료: Agreste-Recensements agricoles(1988; 2000; 2010).

2.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

- 프랑스가 농업 및 농촌분야에 지원하는 공공지원액 규모는 2012년 현재 158억 9,500만 유로로 이 중 60% 정도를 EU 공동농업정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지원내역을 보면 공동농업정책 제1축에 해당하는 시장 및 농업소득지원정책과 제2축에 해당하는 농촌개발정책에 전체의 74.2%에 해당하는 117억 9,90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림 3억 6,900만 유로, 농업계 교육과 R&D에 24억 1,000만 유로(농업계고교와 대학교육을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음), 농림부 등 행정분야에 13억 1,80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음.

표 3-5. 농업부문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0	2000	2012(P)
농업 및 농촌지역	8,530	12,491	11,799
산림	307	422	369
교육과 연구	1,124	1,910	2,410
일반행정	726	1,165	1,318
계	10,687	15,987	15,895
이 중 EU 지원	5,644	9,892	9,552
프랑스 정부 지원	5,043	6,095	6,269

자료: MAAF-SAFSL.

- 농업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농업 및 농촌지역’ 분야 예산에 나타나 있는데, 공동농업정책 1축과 관련된 예산이 2012년 99억 3,100만 유로로 전체의 84.1%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에서도 농업지원방식을 시장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로 전환함에 따라 단일직불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

표 3-6. 농업 및 농촌지역분야 세부지원 현황

단위: 백만 유로

	1990	2000	2012(P)
시장 및 농업소득	6,676	10,330	9,931
- 시장조절	4,751	2,330	321
- 품목연계지원	805	7,018	1,299
- 공급조절	398	528	33
- 단일직불	0	0	6,900
농촌개발	1,814	1,923	1,624
- 영농정착 및 영농현대화, 오염관리	906	430	378
- 자연조건불리지역보상	316	393	570
- 농업환경조치	7	291	386
동식물위생안전	40	238	243
계	8,530	12,491	11,799

자료: MAAF-SAFSL.

- 이처럼 지원방식이 농가직접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직접지원액은 1990년 16억 유로 수준에서 2012년에는 97억 유로로 6배가량 늘어난 반면, 간접지원액은 같은 기간 동안 69억 유로에서 20억 유로로 대폭 축소되었음.

표 3-7. 지원형태별 구분(농가직접지원 대 간접지원)

단위: 10억 유로

연도	직접지원*	간접지원	Total
1990	1.6	6.9	8.5
1995	7.5	4.3	11.8
2000	7.9	4.6	12.5
2005	9.5	3.1	12.7
2010	9.7	2.5	12.2
2012	9.7	2.0	11.8

주: (*) 농가에 직접 지급된 지원액.

자료: MAAF-SAFSL, Agreste.

- 이에 따라 농가소득에서 각종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해 1990년 7%, 2000년 이후에는 34% 수준으로 급증한 상태임. 이 가운데서도 새로 도입된 농가단일직불금은 2012년 현재 전체 보조금의 3/4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8. 유형별 농가보조금 추이

단위: 백만 유로

	1980	1990	2000	2012(P)
품목보조	97.1	614.5	6,565.6	1,067.3
농가보조*	446.1	1,617.7	1,558.7	8,332.1
- 재해보상	28.1	291.2	72.2	116.5
- 조건불리지역(ICHN)	109.5	283.9	374.2	534.1
- 휴경보상	0.0	0.0	349.4	0.0
- 초지유지보상 (PHAE)	0.0	0.0	280.9	244.1
- 농가단일직불	0.0	0.0	0.0	6,923.8
- 기타보조	308.6	1,042.7	482.0	513.6
이자경감	13.9	4.9	110.0	0.0
농업소득에서 보조 및 이자경감액이 차지하는 비중(%)	4.0	7.0	34.9	34.2

주: (*) 이차보전액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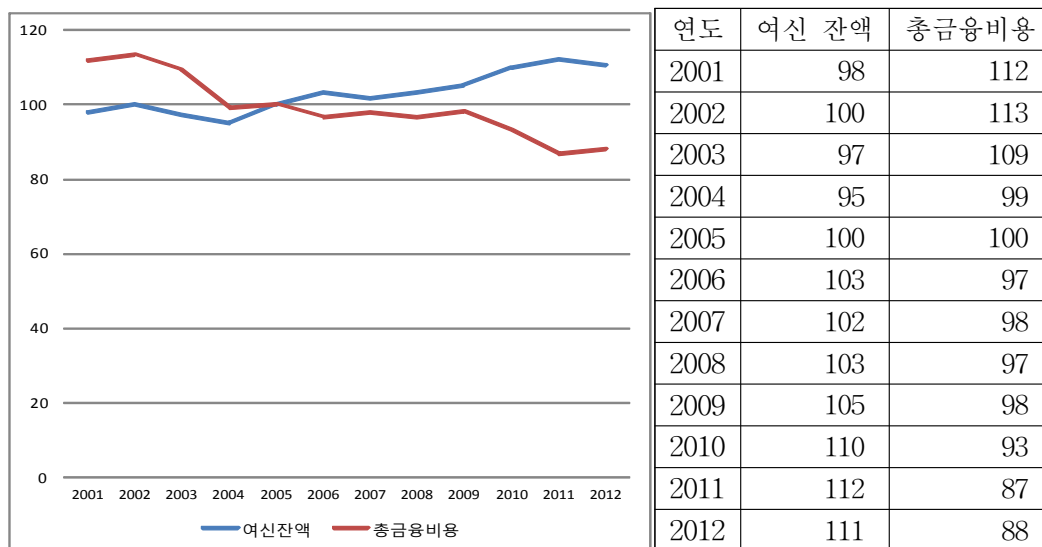
자료: Insee-Comptes de l'agriculture.

3. 농업정책금융의 분류

- 프랑스의 농업정책금융은 민간부문의 농업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청년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해왔음.
- 2012년 현재 프랑스 농민들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율은 평균 3.8%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대출 이자율이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상환 중에 있는 농업금융 총여신규모는 440억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77%가 크레디 아그리콜에 의한 여신임. 이로 인한 총금융비용은 연간 19억 유로에 달하며, 근년 들어 이자율 하락으로 금융비용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농업정책 저리자금은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음. 시중 이자율 하락으로 정책자금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정책자금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프랑스 농가의 총금융비용은 2012년 약 19억 유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정부의 이차보전액과 이자경감액을 제외한 실제 농가부담 금융비용은 약 18억 유로 수준임.
 - 이와 같은 농가 부담 금융비용 수준은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농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농업인 사회보장비 부담 경감 조치를 통해 2012년 한 해에만 6억 유로가 경감되었음.

표 3-9. 농업부문 여신규모와 금융비용 변화 추이

(실질가격기준, 2005=100)



자료: MAAF-DGPAAT(encours); Insee-Comptes nationaux(charge financière).

표 3-10. 농가의 금융비용 부담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연도	1990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P)
총금융비용 ¹⁾	2,714.8	1,981.9	1,918.8	1,992.3	2,018.0	2,062.2	1,977.7	1,863.1	1924.0
이자보전액 ²⁾	656.1	222.9	177.1	225.1	163.2	98.3	79.5	46.5	108.9
농가부담 이자액	2,058.7	1,759.0	1,741.4	1,771.2	1,855.4	1,964.1	1,898.1	1,816.6	1,815.1
농가부담금융 비용경감액 ³⁾	124.9	12.7	7.0	7.9	22.2	0.0	76.4	0.6	1.8
농가부담금융 비용 ⁴⁾	1,933.8	1,746.3	1,734.4	1,763.3	1,833.2	1,964.1	1,821.7	1,816.0	1,813.3

주 1) 농가부담 이자액+이자보전액.

2) 정부가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에 지급한 이차보전액.

3) 농가부담 이자 경감액.

4) 실제 농가부담 금융비용=1 - 2 - 3.

자료: Insee-Comptes nationaux; MAAF-DGPAAT(encours) et rapport sur les concours publics.

- 프랑스 농업정책저리금융에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
- 청년영농정착자를 위한 특별중기융자(MTS-JA): 개인 또는 법인형태의 영농정착 지원⁵
 - 일반특별중기융자(MTS-Autres): 공동영농조합법인(GAEC) 형태의 농장 취득 지원
 - 농기계공동이용조합을 위한 중기융자(MTS-CUMA): 공동 이용 목적의 농기계 및 시설 투자 지원

표 3-11. 농업정책금융의 종류

구분	금리	상환기한 및 조건
MTS-JA	- 조건불리지역 1%, 평야지역 2.5% - 농림부가 기준금리 결정	- 최대 15년, 정책금리 적용기간 조건불리지역은 9년, 평야지역은 7년, 상한금액 조건불리지역 2.2만 유로, 평야지역 1.18만 유로
MTS-Autres	- 조건불리지역 2%, 평야지역 3.5% - 농림부가 기준금리 결정	- 정책금리 적용기간 조건불리지역 최대 15년, 평야지역 12년, 상한금액 11만 유로
MTS-CUMA	- 조건불리지역 1.35%, 평야지역 1.85%, - 프랑스 중앙은행이 대출규모별 기업 앙케트를 통해 매분기별 기준금리를 결정*	- 최대 대출기한 12년, 정책금리 적용기간은 조건불리지역 9년, 평야지역 7년 -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 최대 19.1만 유로, 15인 이상 27.5만 유로

주: (*)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기업국은 매분기별로 대출규모별 금리를 조사해 발표. 2012년 2월 1일 현재 기준 대출규모가 1만 5,245유로에서 4만 5,735유로에 달하는 기업의 중장기 대출금리는 3.85%였음.

⁵ 농업교육 이수, 농업사회보장(AMEXA, AAEXA) 가입 등 일정조건을 갖춘 40세 미만의 영농정착자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지원 외에 보조금(DJA, 일반지역 8,000~1만 1,800유로, 조건불리지역 1만 6,500~2만 2,000유로)을 지급하고 있음.

표 3-12. 농업부문 정책금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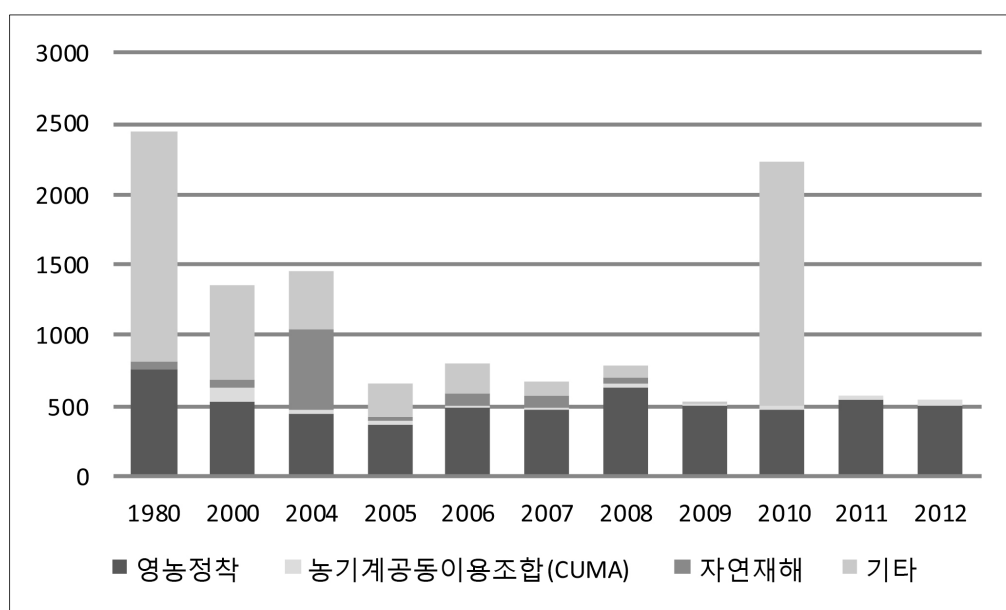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연도	1980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444	1,348	1,454	662	792	671	787	520	2,234	572	541
영농정착	752	534	442	365	491	479	633	497	473	538	507
농기계공동이용 조합(CUMA)	-	94	32	22	13	12	28	18	25	34	34
자연재해	67	57	563	29	77	84	44	-	-	-	-
기타 ¹⁾	1,626	663	417	246	211	96	82	4	1,736	-	-

주 1) 영농현대화 특별금융(prêts spéciaux de modernisation: PSM)과 축산특별금융(prêts spéciaux d'élevage: PSE).

자료: ASP-DIRAP.

그림 3-1. 농업부문 정책금융 추이



- 프랑스의 농업정책금융 규모는 2000년 13억 유로 수준에서 2012년에는 5억 유로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영농현대화 및 축산시설현대화를 위한 특별금융이 2011년 이후 폐지된 데 따른 것임.

- 2012년 농업정책금융 규모는 총 5억 4,100만 유로로 이 가운데 영농정착이 5억 700만 유로로 거의 대부분인 93.7%을 차지하고 있음.

표 3-13. 청년영농정착 지원건수 추이

청년영농정착 승인건수(DJA)	산악지역	조건불리지역 (산악지역 외)	일반지역	계
1990	2,588	3,364	6,987	12,939
1995	1,687	2,109	4,639	8,435
2000	1,136	1,705	3,473	6,314
2005	1,229	1,381	2,714	5,324
2010	1,087	1,247	2,345	4,679
2012	1,069	1,078	2,297	4,444

자료: ASP, DGPAAT-BIM à partir des données Osiris.

표 3-14. 청년영농정착자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단위: 백만 유로

구분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청년영농정착 보조금 지원건수	12,939	6,314	5,324	4,679	4,658	4,444
청년영농정착 보조금액	170	105	126	80	76	75
청년영농정착 저리융자지원액	661	533	365	468	526	465

자료: ASP, DGPAAT-BIM à partir des données Osiris.

표 3-15. 영농분야별 청년정착자 비율(%)

분 야	1990	2000	2005	2010	2012
곡물생산	17	11	12	11	9
화훼, 원예	5	4	4	6	7
포도주(AOC)	5	9	6	5	5
기타 포도주	1	3	2	1	1
과수	2	2	3	2	2
낙농	26	29	23	21	20
육우	13	10	13	13	12
육우와 낙농	1	5	5	5	7
양, 염소	6	7	10	10	9
양돈 및 양계	6	5	3	4	5
복합영농	18	15	19	19	22
기타	-	-	-	3	3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ASP, DGPAAT-BIM à partir des données Osiris.

4. 농업정책금융 운용시스템

4.1. 농업정책금융 취급기관 경쟁입찰제

- 농업정책금융은 전통적으로 협동조합계 은행인 크레디 아그리꼴이 독점적으로 취급해왔으나, 1991년 이후부터는 농림부가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매 2년 단위로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 농업정책자금 저리용자액의 최소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자금과는 별도로 ‘협약용자(Prêts Conventionnés)’를 통해 대출해야 함.⁶
 - 농림부는 농업정책자금 취급 후보 은행들이 제시한 다음의 세 가지 이자율을 고려해 대상은행을 선정함.
 - 1) 총보상이율: 농민부담 이자율(정책금리)+국가의 이차보전
 - 2) 저리용자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 상한
 - 3) 협약용자의 이자율 상한
 - 농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정책금리에 차이를 둘 수 없으며, 은행의 상업적 정책에 의해 정책금융의 내용이 수정될 수 없음

- 현재 농업정책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크레디 아그리꼴 등 6개 기관임: BNP Paribas, Crédit Agricole, Groupe Banque Populaire, Crédit Mutuel, Crédit Industriel et Commercial, Crédit Maritime Mutuel
 -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디 아그리꼴의 농업정책자금 취급비중은 85% 정도로 독점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는

⁶ 협약용자제도는 농업경영체의 투자활동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나 실제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미미해 일반용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 실제 경쟁입찰 시 정책자금 취급 희망은행들이 제시한 협약용자금에 대한 이자율 상한은 시중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크레디 아그리꼴이 농업금융분야에 대한 노하우와 대농민 금융서비스의 질, 농촌지역에서의 압도적인 금융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매년 농림부와 경제부가 저리융자 농업정책자금 규모를 정하고, 각 취급은행에 통보함.
 - 농림부는 매 분기별로 도별로 농업정책자금 유형별 쿼터를 공지함.
 - 정책자금 쿼터는 도별 잔고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4.2. 농업정책금융 융자절차

- 도 농업지도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orientation de l'agriculture: CDOA)
 - 1962년 「농업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농업지도위원회는 농업구조 관리를 목적으로 각 도(Departement)에 설치되었으며, 5년 단위의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자금을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정책자금 신청 농가 또는 법인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 관여하고 있음.⁷
-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은 도 농업지도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단체(CUMA)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금융적 측면에서 사업 타당성에 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함.

⁷ CDOA는 도를 대표하는 자(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모두 21명으로 구성됨. 경제 및 구조분과, 협동조합분과, 역경농민 지원분과 등 3개 분과가 있으며, 경제 및 구조분과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농가를 심의하는 기능을, 협동조합분과는 조합설립 심의 기능을, 역경농민 지원분과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가 구제 방안을 다룸.

- 농업정책자금 희망자는 사업계획서상에 투자타당성에 대한 자체분석 내용을 수록해야 함. 도 농업구조개선협회(ADSEA)나 농업회의소, 일반회계법인 또는 컨설팅회사, 농업은행(크레디 아그리콜) 등이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도지사는 도 농업지도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서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정책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함. 도 농업지도위원회는 매달 1회씩 ‘경제 및 구조분과위’를 열어 신청서류를 심의함.
- 도지사의 농업정책자금 지원 승인 서류는 도 농업국과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각 1부씩 보관됨.

○ 용자허가신청서(Autorisation de financement: AF)

-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은 정책자금 용자 시 AF를 작성해 도 농업국(DDT)에 제출해야 함.
- 도 농업국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AF에 대해 거부, 대기, 승인 등 세 가지 형태로 답해야 함. ‘거부’는 정책자금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서 사유가 명시됨. ‘대기’의 경우에는 도의 정책자금 용자 쿼터가 소진된 경우로서 대기번호가 발부됨. ‘승인’의 경우는 정책자금 관련규정에도 부합하고 도에 정책자금 잔존 쿼터가 남아 있을 경우에 취해지는 결정임. 도 농업국은 용자취급기관에 승인일이 명기된 고유번호를 발부하고, 지불청⁸과 해당 농업인에게도 승인 사실을 통보함.

⁸ 프랑스 지불청(Agence de service et de paiement: ASP)은 2009년 4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기관으로 농림부, 경제부, 산업 및 고용부 공동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두 기관이 합병되어 탄생하였음. 합병된 두 기관은 1960년대 이후 프랑스 농업경영구조개선사업을 담당하였던 CNASEA(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와 2006년 단일직불제(DPU) 도입 이후 활동을 시작한 AUP(단일지불청/Agence unique de paiement)임. ASP는 중앙정부의 각종 공공정책 시행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을 비롯해 환경, 고용,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음. ASP는 프랑스에서 EU 공동농업정책의 제1축(농업지도보증기금) 및 제2축(농촌개발기금)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공식기관임.

- AF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돼 효력을 되찾으려면 청구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투자가 여러 회차에 걸쳐 이뤄지고 투자기간이 최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회차용자(multiversement)’라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함.
- 용자확인서(Confirmation de versement: CV)
- 농업정책금융 취급기관은 도 농업국으로부터 AF에 대한 ‘승인’ 회신을 받을 경우 용자를 실시하고, 용자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자확인서(CV)를 지불청에 통보해야 함.
 - CV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함: 용자신청승인번호(AF), 차입자 정보, 용자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용자일, 첫 이자 납부일 등
 - 지불청은 CV를 토대로 용자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함.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이 지불청에 CV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받을 수 없음.
- 용자금액의 조정과 증빙
-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은 용자일로부터 늦어도 2달 이내에 투자계획과 관련된 지출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감독해야 함.
 -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은 CV 발행일로부터 두 달 동안 차입자의 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갖추고, 필요하다면 용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관련 투자 지출은 도 농업국(DDT)이 승인한 날짜 이후에 이뤄진 것에 국한하며(투자를 위한 구입이나 주문이 승인일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야 함), 동일한 투자 건으로 다른 은행에 저리용자를 신청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취소하고, 용자취급은행은 지불청에 용자조건변경의견서(Avis de modification)를 변경요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함.
 - 1) 용자대상자의 사망
 - 2) 용자조건의 미준수(농업경영체의 법인형태 변경, 농업활동 중단 또는

- 지불청은 CV와 AF를 대조해 융자금액 상에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무효화된 AF를 확인함.
- 정책자금 융자를 다른 농민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농림부의 관련지침에서 정한 양도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4.3. 취급은행에 대한 이차보전

- 국가가 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에 대해 보상하는 이차보전은 농민들이 부담하는 정책자금 이자율(저리이자율)과 경쟁입찰 시 각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상이율의 차이를 보전함.
 -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융자할 시점에 적용한 보상이율은 융자금의 전체 상환기간에 대해 적용되며, 만일 이 기간 동안 취급은행들의 자금취급 비용에 관한 지표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보상이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 정책자금 취급은행별 융자실현 내용과 융자조건 등에 관한 내용은 지불청에 의해 관리되며, 정책자금 취급은행이 제시한 저리융자 영수증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참고 문헌

- European Commission. 2013. Overview of CAP Reform 2014-2020.
- European Commission. 2013.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2014-2020 and EU budget 2014.
- BMEL(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14. Gemeinsame Agrarpolitik der EU. 2014 bis 2020.
- BMEL(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13. Die wirtschaftliche Lage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im WJ 2012/2013.
- BWE(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014. Das Erneuerbaren-Energien-Gesetz 2014.
- LwRentBkG. 1949.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2013년 개정.
- Rentenbank. 2013, 2012, 2011, 2010. Geschäftsbericht.
-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1. Agrarstrukturen in Deutschland. 독일 연방통계청. <www.destatis.de>.
- 독일 통계포털사이트. <<http://de.statista.com/>>.
- 크레디 아그리콜. <www.credit-agricole.fr>.
- 프랑스 농림부. <www.agriculture.gouv.fr>.
- 프랑스 농림부. Les concours publics à l'agriculture en 2008.
- 프랑스 농림부. la Circulaire SG/DAFL/S DFA/C2007-1517 fixant la list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habilités à distribuer des prêts bonifiés à l'agriculture jusqu'en 2013(농업 정책금융취급기관선정지침).
- 프랑스 지불청. <www.asp-public.fr>.

R724 연구자료-2
농업정책금융 해외사례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세일포커스(주)
전화 02-2275-6894 <http://www.seilfocus.com>

ISBN 978-89-6013-704-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